

§ 교회 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22년 표어 §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마 22:37-40)

十 행동 지침 十

- 1. 다시 말씀 앞에(Reconfirm)
- 2. 다시 교회로 (Rebuild)
- 3. 모두 함께 기쁨으로 (Rejoice)

발행인 : 손달익 목사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 www.seoulchurch.or.kr



그리스도 예수와 아브라함 Ⅱ

(요 8:52-59)

이종윤 원로목사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당신이 어떻게 아브라함보다 크다?” 라며 예수님을 박해하고 마지막에는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3. 아브라함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 하나님의 부르심을 영광으로 삼은 사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요 8:56)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을 인생 최고 최대의 영광이요, 목표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성도라는 책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놀라운 직임을 받았는데 이것을 내 인생의 최고 최대 기쁨이고, 가장 자랑스러운 신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고 사람들 앞에서 존귀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도 그러했고 하란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세상의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을 그렇게도 소중히 알았습니다.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에 그가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어떤 곳인지도 모르는 채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볼 것을 보았습니다. 들을 것을 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렇게도 소중히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존영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입니다(히 11:8-10). 우리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 부르심을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음으로 응답해야 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나 유대지도자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2) 환경보다는 하나님을 더 믿은 사람

아브라함은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아브라함이야말로 어려운 환경을 믿음으로 이긴 사람입니다. 그에게 제일 먼저 닥친 어려운 환경이 경제 문제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새 땅에 갔을 때 기근이 아주 심했습니다. 약속의 땅이라고 주시기는 했는데 가나안 땅에 가니까 기근이 심해 살 길이 없어서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내려간 후로 이런 저런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만의 의

지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당한 환란 중 빼놓을 수 없는 큰 것은 백세에 얻은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셔서 고통 속에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 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매를 때려서라도 당신의 백성을 기어코 만드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3) 하나님의 주권을 믿은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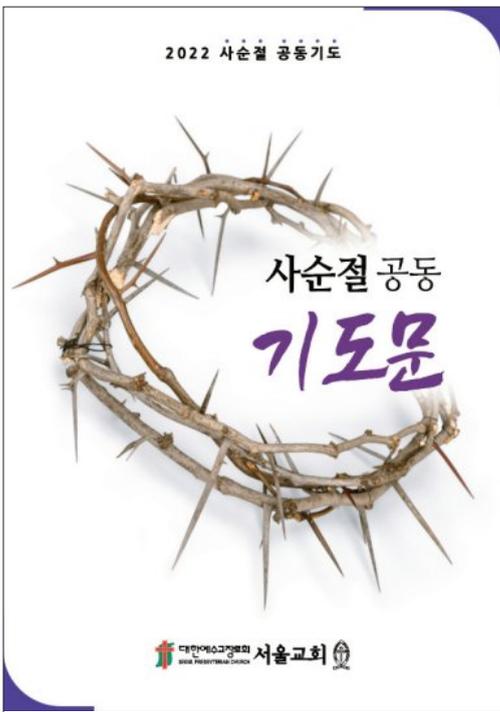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여자로서의 기능이 끊어진 상태의 사라는 죽은 자와 방불했고 아브라함도 도저히 얘기를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이를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조성하기도 하시고 환경을 제거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존재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의 권능과 사랑과 나타난 역사를 믿고 그것이 내게 임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그 일을 내게 지금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정성과 최선을 다하여 드리므로 하나님을 면대해야 합니다. 한마디 기도를 해도, 삼십 초의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의례적이고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입니다.

(4) 희망을 가지고 산 사람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고 희망을 가지고 산 사람입니다. 그 희망은 약속의 씨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때 보기를 기뻐하고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높이는 이유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끌고 가서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에도 메시아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을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것은 부활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살릴 것이라고 하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은 하면서도 아브라함이 정말 무슨 신앙을 가졌는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중히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순절 공동 기도문

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 안의 탐욕을 멀리하고
경건한 삶을 살게 하셔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제자의 길을 쉬지 않고 달려가게 하옵소서.

화 서울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교회의 회복을 허락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되게 하셔서
만민전도의 큰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수 역사의 주권자이신 주님!
나라의 현안들이 안정되게 하시고 상생과 화해로
백성들의 삶이 풍요롭게 하시며
복음화 된 통일 대한민국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목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끌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들을 돌보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헌신케 하옵소서.

금 온 세계의 주인이신 평화의 주님!
전쟁이 있는 곳에 평화를 내려주시고 코로나 팬데믹이 종식되도록
자유의 은총을 내리시옵고 가난과 질병과 분쟁이 있는 땅에
하나님의 긍휼이 넘치게 하옵소서.

토 만물의 창조주이신 주님!
우리가 피조물의 정치기임을 기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는 지구생명공동체를 가꾸게 하시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아름다운 세상 되도록 저희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올해 사순절기간 동안 '사순절 공동기도문'에 실린 요일별 기도제목을 활용하여
매일 한가지씩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자.

순결서약식 거행

오늘 찬양예배 시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20장 7절)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서울교회에서는 2000년도부터 결혼이전의 학생을 대상으로 순결서약식을 매년 진행하였다.

그러나 분란과 코로나로 지난 2년간 순결서약식을 진행하지 못하였고,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금년에는 새학기 시작과 함께 순결서약식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번 진행되는 순결서약 총 인원은 22명이며,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중등부 (17명)
김도윤 임라임 장한솔 김중혁 김성주 한예준 김은송 정은채 문영은 주하은 이시우 윤서현 장유정 이윤익 최시원 장유섭 최주하
- 고등부 (3명)
윤동현 윤서영 장유안
- 청년부 (2명)
이가진 이은주

교사 교육 및 세미나

3월 12일(토) 오후 2시 - 5시

교육위원회(위원장 : 김혜언 집사)는 "천국시민 양성"의 서울교회 교육 목표에 적합한 교사 양성을 위해 교사 교육 및 세미나를 3월 12일(토) 오후 2시에 갖는다.

교사 세미나 진행 계획표는 다음과 같다.



강사 : 김성중 교수

- 글로벌현장교육원, Ed.D.
- 연세대학교 신학과(B.A.)
-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M.Div.)
-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M.A.)
- 미국 Boston University(S.T.M.)
- 미국 University of Florida(Ed.D.)
-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 기독교교육리더십연구소 소장
- 전국청소년수련회 강사

- 교사 교육 및 세미나 일정과 주제 -

	1교시	2교시
주제	교회학교 교사의 소명과 소양	기독교 교육의 이해
강사	손달익 담임목사	김성중 교수
대상	전교사 및 희망자	
방법	대면(or zoom) & 실시간 방영	

온라인 헌금을 위한 봉헌 계좌

서울교회 통장 계좌는 다음과 같다.

- * 신한은행 대치동 지점
100-034-868968
(대한예장 서울교회)

광고

신속한 교회 행정을 위하여 이사 등 주소 변경 시는 즉시 사무국이나 교구목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예배실 대청소

3월 12일 (토) 오전 10시

교육위원회는 새봄, 새학기를 맞아 3월 12일 (토) 오전 10시, 교회학교 예배실 대청소 진행할 예정이다.

대청소 시, 사용하지 않은 물품들은 폐기 혹은 이동할 예정이다. 혹시라도 분실되는 물품이 없도록 필요한 물품은 미리 정리,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청년들 중, 군에서 복무 중이거나 입대 예정인 청년과 대상 청년의 가족을 비전2030 도고팀에 알려주기 바랍니다.

군대에 있는 동안 좋은 상관과 동료들을 만나고 저들의 신앙과 안전을 위해 비전2030 도고팀은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

- 비전2030 도고팀장 고선욱 권사
010-3344-6400

- 기도 대상자들
한지원 심준규 문영훈 이준우 정건 경건웅 이진우 유동연 심준규 허성강 백승규 옥준용 장하람 최윤학 이강현 유성근 황수지 소위 안지훈 중위 이연희 대위 이예희 하사 문창희 중사 김정균 소령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 세계가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빠른 전쟁 종식과 우크라이나에 거주 중인 교민들의 안전한 탈출, 특별히 파송 받으신 선교사님들의 무사귀환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사순절 되게 하소서

손달의 담임목사

주님이 거룩하심 같이 우리도 거룩해지도록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
제 십자가를 지고 이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옵소서.

영혼의 청결을 위해 살지 못하고
탐욕의 종이 되었던 지난날을 회개합니다.
영혼을 갈아먹는 더러운 유혹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정결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이 땅의 불의한 권세들을
전능하신 능력으로 징치하여 주시옵고
연약한 자들의 핍절을 끊어 살피 주시옵소서.
폭력으로 남의 땅을 짓밟는 야만을 멈추어 주시고
온전한 평화와 안전한 일상을 회복케 하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거룩하게 지켜주시고
전염병의 공포로부터 안전하게 하시옵소서.
교회와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그릇이 되어
세우신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피조세계를
잘 가꾸어 나가는 사명을 다하게 하셔서
자연을 파괴하는 세상의 어리석은 이기심 앞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크신 뜻을 전파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날마다 허락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나눔의 손길을 멈추지 않으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경건하고 축복된 사순절이 되게 하시옵소서.
당신을 바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사 교육 세미나에 초대합니다



김해언 집사
(교육위원회 위원장)

‘교회학교를 섬긴다’는 것은, 보람입니다. 행복입니다. 그리고 사명입니다!

어려서부터 교회에 오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친구들을 만나 어울리며 예배 가운데 믿음을 키워가는 교회 학교 학생들을 대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 속에 기쁨과

감격이 넘치고는 합니다. 그럼에도 한편으로는 무겁고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먹고 쭉쭉 자라나는 우리 서울교회의 새싹들에게, 세밀하고 충족되게 공급하지 못하는 교회 교육 환경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남아서입니다. 학생들에게 적절한 기회를 공급하려면 무엇보다 학생들과 함께 호흡하며 기도하고 보살필 교사들이 필요함에도 훈련된 교사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

문입니다.

“분란이 있어서 그래”,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환경이야”, “다른 교회는 더 심해, 다 그래”. 사실이기도 하지만, 사실에 근거한 핑계일 뿐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분란이나 코로나 가운데에서도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채워져야 할 영양분을 제때 공급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건강한 다음 세대’를 결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에 교육위원회에서는 기존의 교사들만을 위한 교육이 아닌, 모든 성도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는 세미나를 마련하였습니다. 희망이 없는 일제 강점기에, 신앙의 선배들은 선교사님들과 함께 학교를 세우고 다음 세대에 대한 기대를 심고 교육에 앞장섰습니다. 식민지와 남북 분단국가로 치달았음에도, 이러한 교육의 힘은 대한민국을 가장 열정적인 교육의 나라로 만들었고 지금

의 발전을 이루게 하였습니다.

지금도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위기라고 여겨지는 이때, 우리는 핑계와 변명보다는 다음 세대를 향한 기대와 헌신된 모습으로 교회학교를 통한 예배와 말씀에 더욱 집중하고 교육할 때입니다.

금주 진행되는 교회 교사 세미나에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12일(토) 오후 2시부터 90분씩, 2강좌가 진행됩니다. 교회에 나오시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온라인을 통한 zoom으로 동시 운영되어집니다. 오늘도 다음 세대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그 시선에, 나의 시선과 관심을 맞추는 ‘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Zoom 정보는 12일(토) 오전까지 교회 문자를 통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에 대한 기대, 보람, 행복 그리고 사명! 함께 누리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지난 주 우리교회는..

지난 주일 찬양예배 시 2022년 장학금 수여식이 있었다. 선발된 학생들은 총 23명으로 이들이 말씀 안에서 이 나라와 교회를 이끄는 기둥들이 되도록 기도 바란다.

자연을 위한 소소한 실천

2022 순례자 캠페인 '크리스찬이 세상을 바꾼다'를 시작하고 성도들의 환경을 위한 실천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한나 성도 (8교구)

환경을 위한 저의 소소한 실천 중의 것들입니다.

1. 텀블러 사용하기



2. 화장 솜 대신 다회용 솜 사용, 실리콘 면봉 사용

(순례자 : 한번 쓰고 버려져 쓰레기를 양산하는 일회용 솜이나 면봉 대신 다회용 솜과 실리콘 면봉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3. 일회용품 수저, 젓가락, 포크 대신 개인 수저 세트 사용



4. 일회용 빨대 대신 스텐레스 빨대 사용



5. 손수건 사용, 소창 수건, 물티슈 대신 소창, 삼베 행주 사용



6. 직접 만든 고체 비누, 대나무 칫솔과 고체 치약, 삼푸바와 린스바 사용



그밖에도 면생리대와 생리컵 사용, 우유팩과 멸균팩 씻어서 분리배출(순례자: 멸균팩과 우유팩은 좋은 품질의 종이로 재사용됨), 밀랍 랩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2022 순례자 캠페인 - 크리스찬이 세상을 바꾼다



순례자는 2022년 '크리스찬이 세상을 바꾼다'를 슬로건으로 한 환경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 참여 방법

1. 내가 실천하고 있는 친환경 생활에 관한 글이나 인증 샷

2. 플로깅(plogging 조깅하면서 쓰레기 줍는 환경운동), 비치코밍(beachcombing 해변 쓰레기줍기) 등 MZ세대의 친환경운동 인증 샷

* 참여 기간 2022년 4월 22일(지구의 날)까지

* 참여해 주신 성도들에게 소정의 친환경 제품을 드립니다.

* 보내는 곳

순례자 유은경 집사 (yoolulu@hanmail.net)

동 정

■ 떡 제공 : 7교구 황병석 집사·김영숙 권사 가정 (자녀 육사 졸업과 임관을 감사하며)

전교인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2독	확인
3월7일	월	신 5-7		왕하 16-21	
3월8일	화	신 8-11		왕하 22-25, 대상 1-2	
3월9일	수	신 12-14		대상 3-6	
3월10일	목	신 15-18		대상 7-11	
3월11일	금	신 19-22		대상 12-16	
3월12일	토	신 23-26		대상 17-24	
3월13일	주일	신 27-28		대상 25-29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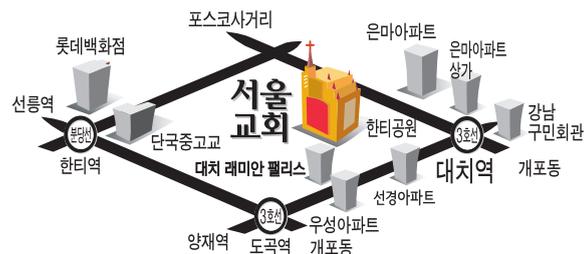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2. 교회 회복을 허락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서울교회 되게 하소서.
3.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고, 복음화된 통일 대한민국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일예배	I 부 예배	오전 9시
	II 부 예배	오전 11시
	III 부 예배	오후 2시
	찬양예배	오후 4시 30분
수요예배	I 부 예배	오전 11시
	II 부 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본당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